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2019년 3월 25일 | 책임조사역(G3) 이광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905천 km ² 	인구 2.7억 명 (2018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GDP 1조 53억 달러 (2018 ^e) 	1인당GDP 3,789달러 (2018 ^e) 	통화단위 Rupiah(IDR) 	환율(U\$기준) 14,236.9 (2018년 평균) 

- 적도에 위치한 16,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의 도서국인 인도네시아는 ASEAN(동남아 국가연합) 내에서 최대 경제규모 및 최다 인구(세계 4위)를 보유한 나라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전략국임.
- 2004년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현재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 개혁 성향의 Joko Widodo 대통령이 취임하여 경제성장 지속 및 소득 불평등 개선에 힘쓰고 있음.
- 팜오일, 고무 등 농산물과 석유, 천연가스 및 기타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2.7억 명의 인구 중 절반 가량이 24세 이하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9. 18 수교 (북한과는 1964. 4. 16)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71년), 임업협정('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89년), 항공협정('89년), 투자보장협정('94년), 문화협정('07년), 범죄인인도조약('07년), 원자력협정('11년), 형사사법공조조약('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17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6,608,530	8,403,680	8,833,195	자동차취발유, 편직물, 경유, 군함
수입	8,285,343	9,570,960	11,161,192	유연탄, LNG, 동광, 원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172건, 10,819,043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제성장률	5.0	4.9	5.0	5.1	5.1
소비자물가상승률	6.4	6.4	3.5	3.8	3.4
재정수지/GDP	-2.1	-2.6	-2.5	-2.3	-2.2

자료: IMF, EIU

2019년에도 정부지출과 기업 투자 증대로 5%대 경제성장률 지속 전망

-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8년 GDP 기준 서비스업 45.2%, 산업 41.4%(제조업 약 20% 포함), 농업 13.3%로 구성되어 있음. 2018년은 농업 부문의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제조업 및 광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이어 5.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 부문은 제조업, 임·수산업, 건축업, 광업 등임.
- 인도네시아 경제는 GDP 대비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총투자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 왔으며, 광업 부문은 인도네시아의 주된 투자 분야이자 핵심 수출산업임.
- 주요 광물 자원은 석탄, 동, 금, 주석, 니켈 등이며, 국내 및 중국, 인도 등의 화력 발전용 석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석탄의 생산량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세계은행은 2019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4월 대선 및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지출 확대, 선거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 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증가 등으로 연간 5.2%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8년 12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 경제성장률이 5.2~5.5%,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이 5.1~5.6%를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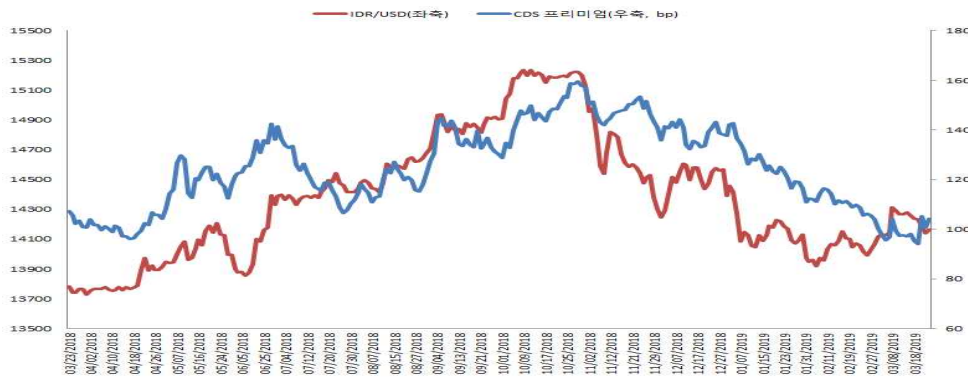
물가안정 기조 하에서 통화가치 방어 노력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8월 기준금리 변경 이후 3%대를 유지하여, 중앙은행 물가안정 목표치인 2.5~4.5%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 물가안정은 Joko Widodo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2018년의 물가상승률 안정도 정부의 유류가격 동결 조치에 힘입은 바가 큼.
-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8년 중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루피아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간 총 6회, 1.75%p 인상하였음.
- 루피아화 가치는 2018년 9월 10일 달러화 대비 현물환율이 최대 15,238루피아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12.4%까지 하락하였고, 심리적 저항선인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15,250)에 육박하여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까지 대두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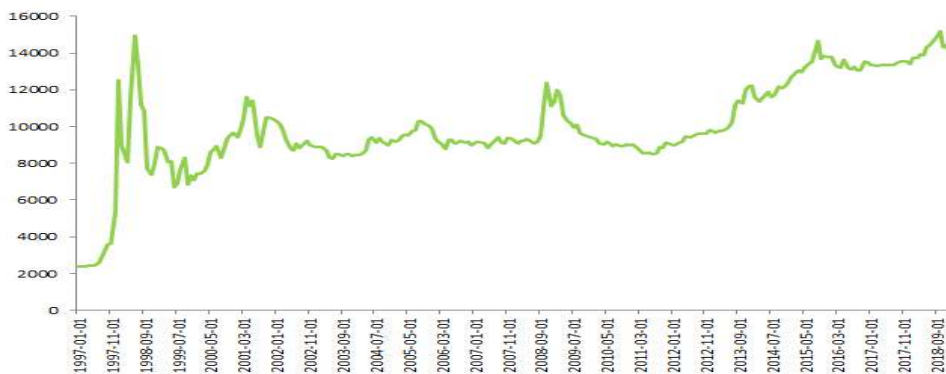
국내경제

- 2019년 1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선화하고, 2019년 1월말 기준 달러당 루피아화 가치가 13,973루피아로 다소 안정되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9년 2월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루피아화 가치 변동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하였음.
-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5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도 2018년 10월 30일 159.6bp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고, 2019년 3월 20일 현재 105.3bp로 2018년 3월 21일 수치(102.1bp)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최근 1년간 미달러화 대비 루피아화 환율 및 CDS 프리미엄 추이(2018. 3. 23. ~ 2019. 3. 22.)¹⁾ >



< 1997년 이후 미달러화 대비 루피아화 환율 추이(1997. 1. ~ 2019. 2.)²⁾ >



세수 증대로 재정적자 점진적 축소 전망

- 인도네시아는 소득세, 유류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통한 세수 증가분이 에너지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형태의 정부지출 증가분을 일부 상쇄하면서 재정적자 상황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어 2018년 GDP 대비 -2.2%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인도네시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체 재정적자 수준이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Sri Mulyani 재무장관도 지난 1월 초에 2019년은 최근 6년 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가장 작은 해가 될 것임을 공언한 점에서 재정수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은 2019년 추가적인 세수 확대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1.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 상 수 지	-27,510	-17,519	-16,952	-17,307	-31,061
경상수지/GDP	-3.1	-2.0	-1.8	-1.7	-3.1
상 품 수 지	6,983	14,049	15,318	18,785	-430
상 품 수 출	175,293	149,124	144,470	168,854	180,747
상 품 수 입	168,310	135,076	129,152	150,069	181,177
외 환 보 유 액	106,073	100,626	110,931	124,143	111,832
총 외 채	294,405	310,730	320,006	352,247	370,204
총외채잔액/GDP	33.0	36.1	34.3	34.7	36.8
D.S.R.	9.6	12.5	14.8	11.8	7.8

자료: IMF, EIU

상품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 2018년 상품수지는 전년대비 20.7% 급증한 상품수입 규모가 전년대비 7.0% 증가에 그친 상품수출 규모를 초과하면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입의 증가는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이 최근의 총투자 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 따라 증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의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 반면 상품수출은 광물 수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나, 전체 수출규모의 83%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 수출의 성장이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
- 한편, 2018년 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304억 달러로 2017년 -328억 달러 대비 7.1% 감소하였음.
- 소득수지 개선은 2016년 7월 ~ 2017년 3월 실시된 조세사면 프로그램³⁾에 따른 국외소득 유입 추세가 2018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 EIU는 향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추세 및 투자 확대 예상 등을 감안할 때 상품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276억 달러를 기록하고, 2023년 GDP 대비 비중도 -1.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1) 자료 : Bloomberg

2) 자료 : Bloomberg

3) Tax Amnesty Program : 국내의 은닉자산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등 혜택을 부여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정책.

외채상환능력

양호한 외환보유액 규모 유지

- 외환보유액은 2016~17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 왔으나, 2018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FDI 및 간접투자 유입액 감소, 루피아화 가치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9% 감소한 1,1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전년(39.5%)대비 상승한 43.8%를 기록함.
- 다만, 외환보유액 규모는 월평균수입액 대비로는 5.3개월분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 중임.
- * FDI 순유입액(억 달러) : 161.4('16) → 192.9('17) → 138.4('18^e)
- ** 간접투자 순유입액(억 달러) : -1.2('16) → -3.6('17) → -181.6('18^e)
- EIU에 따르면 FDI 순유입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까지 202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간접 투자는 2021년에 순유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이나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다소 높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0%대를 유지해 온 가운데 외채잔액 증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2018년 말 기준 전년(34.7%)대비 상승한 36.8%를 기록하였으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 * 총외채잔액/총수출(%) : 186.2('16) → 175.9('17) → 169.9('18^e)
- 2018년 말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최근 총수출 회복 추세와 원리금상환액 감소로 7.8%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4%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 외채원리금 상환액(억 달러) : 254.9('16) → 237.2('17) → 170.4('18^e)
- ** D.S.R.(%) : 14.8('16) → 11.8('17) → 7.8('18^e)

4)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중 루피아화 가치 방어를 위해 소모한 외환보유액이 71억 달러(전체 외환보유액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구조적취약성

경제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비중

-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인접 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대비 경제규모가 큰 편이나, 총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특히 인도네시아 상품수출의 GDP 대비 비중은 18%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주요 ASEAN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2018년)

(단위: 십억달러, %)

구 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GDP 규모	1,005.3	347.3	490.1	241.4	331.7
총수출/GDP	21.7	74.6	69.7	105.8	31.4
상품수출/GDP	18.0	59.9	51.5	99.7	16.5
FDI*/GDP	1.4	0.6	-1.1	5.8	2.5

* FDI는 순액 기준(='유입액-유출액')

-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수출경쟁력이 낮은 원인은 원활한 원자재 수입을 방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국인투자 제한, 낮은 노동생산성, 비효율을 유발하는 보조금 정책 등으로 분석됨.
- 안정적인 외화 수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출과 FDI 유입이 더디게 진행될수록 인도네시아 경제가 변동성이 높은 단기외채에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2018년의 경우처럼 외부적 충격에 취약해져 루피아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무역장벽 제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원활한 수출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여 금융불안 우려를 줄여나가야 함.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조사 대상 140개국 중 71위를 기록하였음.
- 도로(120위), 전화(98위), 철도(82위) 등 주요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16,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서의 길이가 5,129km에 이르는 지리적 특성상 송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별 전력 보급률의 차이가 큰 상황임.

성장잠재력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인도네시아는 팜오일 세계 1위, 고무 세계 2위, 카카오 세계 3위, 커피 세계 4위 생산국이자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4위의 자원 부국임.
- 또한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2018년 11월 발표한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에는 석유·가스, 10MW 초과 발전소 및 고전압 설비 등 에너지, 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100%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천연자원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총인구의 절반 가량이 24세 이하인 젊은 인구대국

-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2.7억 명의 인구가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인구의 절반 가량이 24세 이하여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기 유리한 상황임.
-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의류(봉제) 생산 규모는 GDP 대비 3.6%를 기록하여 전년(2.6%)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강성 노조와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2019년 8% 인상 예정)은 봉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정책성과

다각적인 경제발전 정책 추진

- Joko Widodo 정부는 2019년 3월 현재까지 경제발전을 위해 총 16개의 경제개혁 패키지를 발표 및 추진 중으로 제도 개선, 산업 활성화 대책,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음.
- 적극적인 정책 추진 결과 인도네시아의 기업경영여건이 개선되어 Doing Business 순위가 점차 상승하였음.
- * Doing Business Index 순위(총 190개국) : 109('16) → 91('17) → 72('18) → 73('19)
- 한편, 경제성장률 수치는 인프라 구축이 계획 대비 지연되면서 Joko Widodo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공언하였던 7%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친서민적 정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음.
- 지니계수가 2014년 0.406에서 2018년 9월 기준 0.384로 하락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00만 채 짓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서민금융기관을 발족시키고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에 부과되는 고율의 이자부담을 낮췄음.

정치동향

Joko Widodo 대통령, 2019년 4월 선거에서 연임 가능성

- 금년 4월 17일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Joko Widodo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57.6%로, Gerindra 당 대선후보인 Prabowo Subianto 후보의 지지율 31.8%를 크게 앞서고 있어 Joko Widodo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기업인 및 정치인으로 자수성가하며 파격적이고 친서민적 행보를 이어 온 Joko Widodo 대통령은 2014년 대선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인적자원 개발, 국가경제 시스템 강화, 지역 균등발전, 인프라 확충 등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음.
- 32년(1967~1998년) 간 인도네시아를 통치한 Suharto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군 장성 출신인 Prabowo Subianto 후보는 보수 진영의 입장을 반영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주장하며 국영기업 개혁, 일자리 창출, 농림수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음.
- 이번 대선은 두 후보의 정치 및 종교 성향보다는 경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루피아화 가치 변동 등 돌발 경제변수가 발생할 경우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사회동향

이슬람 극단주의, 분리독립 운동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상존

- 300여개 민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원리주의, 분리 독립주의 및 이슬람-기독교 간 종교 갈등 등 주로 종교 및 민족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인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6년 1월 자카르타 자살 폭탄 테러, 2018년 5월 수라바야 폭탄 등 대규모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의회는 2018년 5월 테러 발생 이후 2003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개정하여,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를 선제적으로 구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강화 및 보완하였음.
- 또한 인도네시아 치안당국은 2018년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및 10월 IMF 연차총회를 앞두고 대테러 부대원 600명을 증원하였으며, 동 행사들과 관련된 테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음.
-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정부는 2018년 1월 국제 테러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협력 네트워크(Our Eyes)를 출범시켰음. 동 네트워크를 통해 6개국 고위 국방 당국자들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음.

국제관계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노선

- 1945년 독립 이후 국가 이익을 위해 특정 국가나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국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기본 외교노선임.
- 동 외교노선은 자주성, 반제국주의, 실용주의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동맹 정책을 주창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ASEAN 중심국가로서 지역 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한편, Joko Widodo 행정부는 기존의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방문 시 주요 의제를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에 설정하는 등 경제외교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체적인 대규모 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도 적극적임.
- 3월 19~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총 911억 달러 규모의 28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28개 사업은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발리 등 4개 주에 항구, 산업단지, 발전소, 제련소 등의 조성사업임.
- 인도네시아에서는 52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사업이 일대일로 사업으로 진행중이며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2018년 8월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90개 중국 기업 앞 민자 발전, 고속도로 건설 등 약 132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

적극적인 무역협정 추진 및 국제사회에서 위상 제고 노력

-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및 그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의 여파에 대응하여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며, 3월 4일 호주 정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였음.
- 2011년 ASEAN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⁵⁾이 2019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이 주도하고 환태평양지역 11개국⁶⁾이 참여하여 2018년 12월 30일 공식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인도네시아는 금년 중 12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한국·터키 등과 CEPA, 모잠비크·튀니지·터키·이란 등과 특혜무역협정(PTA) 체결을 추진 중임.

5) ASEAN 10개국 및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16개국으로 구성

6)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외채상환태도

과거 채무재조정 경험 있으며 구제금융 조기상환

- 인도네시아는 과거 채무재조정 및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조기상환 하였음.
- 2002년 67억 달러, 2005년 26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며,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으로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2006년 조기상환하였음.

낮은 비중의 연체이력이 존재하나 감소세

- 2018년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총승인액은 199억 달러(단기 33.7억 달러, 중장기 165.4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연체이력은 5.2억 달러(중장기 승인액의 3.1%)로 감소세를 나타냄.
- * 연체이력(연말 기준, 억 달러) : 11.2('15) → 6.8('16) → 6.9('17) → 5.2('18. 9월말)
- 중장기 승인액 중 컷오프(1997년 7월 1일) 이후 승인액은 147.2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연체이력은 2018년 9월말 기준 0.2억 달러(0.11%)에 불과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18.06)	3등급 (2017.06)
Moody's	Baa2 (2018.04)	Baa3 (2017.02)
Fitch	BBB (2018.09)	BBB (2017.12)

2017년 이후 점진적 등급 상황

- S&P와 Fitch는 각각 2017년 5월 및 12월에 재정적자 축소 및 공공부채 안정화 전망 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한 이후 2019년 3월 현재까지 유지 중임.
- Moody's는 2018년 4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부부채 규모로 입증된,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한 신뢰성, 효과성 있는 정책 체계를 근거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하였음.
- 한편, OECD는 2012년 인도네시아의 신용 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2019년 3월 현재까지 유지 중임.

- 인도네시아는 2018년 제조업 부문의 성장과 총투자 지속에 힘입어 전년과 유사한 5.1%의 경제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개혁 성향의 Joko Widodo 대통령은 경제성장세 지속, 친기업 및 친서민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4월 예정된 대선에서 승리하여 연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정책 기조가 유지 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경제규모 대비 낮은 수출비중 및 해외직접투자 유치 규모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히는 한편, 외부 요인에 따른 루피아화 가치 불안정성과 지진, 화산, 쓰나미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존재함.
- 향후 인프라 확충, 수출 육성 및 사회불안 요인 감소 여부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과 국가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